



안철수 무소속 의원(왼쪽)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밝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安·朴 한자리에... “남북대화의 길 찾아야”

(문재인·안철수·박원순)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기념식

동교동계 등 1000여명 참석... 통일부장관도 5년만에

이희호 여사 “빠른 시일 내 당국자 회담 재개되길”

남북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이었던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기념식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대중평화센터와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정세현·이재정·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권노갑 전 의원을 포함한 동교동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의 유력 정치인 3명도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인 이 여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6·15 기념일을 즈음해 예정됐던 남과 북의 당국자 회담이 뜻밖에 무산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면서 “이른 시일 내 당국자 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개회사를 통해 “모처럼 뒤통을 맞았을 것 같았던 남북관계가 냉랭하게 돌아섰다.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다시 대화의 길 찾아야 한다”며 “서울시도 6·15 정신을 바탕으로 정부가 허락하면 경평추진, 서울시향 공연과 같은 문화체육교류로 남북화해시대를 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5년 만에 6·15 정상회담 기념행사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축하사에서 “새 정부는 6·15 선언을 포함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런 합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간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6·15 공동선언은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그 이전에 남과 북이 함께 합의했던 문건의 연속선상에 있다”면서 “7·4부터 6·15까지 남과 북의 합의사항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은 상호 존중과 평화, 호혜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어 남북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면서 “이번에 보여준 북한의 모습은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남북 간에 조보적 신뢰조차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건배사에 나선 문 의원은 “13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가 도로 파탄이 돼서 6·15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 현실 보면서 6·15 선언이 얼마나 큰 임팩트였는지 절감한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열어놓은 평화를 후

손들이 발전시키지 못하고 퇴보시킨 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른 일정 때문에 30여분간 행사장에 머물다가 먼저 자리를 뜬 안 의원은 최근 남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요한 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행사는 정부의 공동행사 불허 방침에 따라 남과 북에서 따로 열렸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은 15일 오후 2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연 뒤 개성으로 이어진 통일대교까지 1km가량 행진하며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필리핀 마닐라, 무안서 출발하세요

내달 25일부터 매주 목·일요일 정기노선 취항

오는 7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운항된다.

전남도는 16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 를 위해 필리핀항공과 신규 취항을 협의, 다음달 25일부터 무안~필리핀 마닐라 정기편을 운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며 기종은 A320, 정원은 156명이다. 무안공항에서 동남아 정기노선 취항은 처음이다.

무안공항 운항노선은 제주, 상하이, 베이징 등 3개 정기노선과 텐진, 심양 등 2개 정기성 전세기,

방콕, 하노이, 오사카 등 10개 부 정기 노선이 있다.

전남도는 무안~마닐라 노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동남아, 일본 등 신규 노선 취항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7~8월 중 필리핀 세부, 중국 마카오, 일본 북해도, 베트남 다낭 등도 관광 성수기에 맞춰 부정이 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기 취항이 늘면서 국내외 여행자들이 부정이 노선을 검토하는 등 신규 취항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뽀문화전당, 정부조직으로 운영해야”

광주시, 예산확보 부실 우려 법인위탁운영 반대

광주시는 정부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법인위탁안(광주일보 14일자 1면)과 관련,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6일 “문화전당은 수익 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법인에 맡겨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시는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운영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

려워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문화전당)설립 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조직이 안정된 이후 법인 위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최근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명칭을 ‘아시아 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당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시아 문화원은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을 띤 기관이다.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5·18 증인’ 회화나무 정신 이을 후계목 찾았다

선수영씨 4년전 어린씩 발견 집에서 키워 기증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켜 본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의 후계목이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태풍 불라벤으로 쓰러진 회화나무가 회생 노력에도 결국 지난달 고사관정을 받아 안타까워하던 광주시민들은 회화나무의 정신을 이을 후계목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15일 푸른광주21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선수영(62)씨가 전화를 걸어 회화나무의 씨앗이 틈은 후계목을 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씨는 4년 전 풀베 차량으로 영업을 하며 도청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우연히 회화나무 앞에 자라난 어린씩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와 키워왔다.

산씨는 “고사한 회화나무의 해원 의식이 열리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고 그 자식이나 다름없는 나무를 전달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후계목을 기증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 ‘도청 앞 회화나무 문화제’에서 회화나무와 나란히 선 후계목은 아직은 큰 화분 안에

담겨 있는 어린나무였지만 2m까지 훌쩍 자란 키에 가지마다 푸른 잎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해 제법 의젓한 나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광주 시민과 지역 환경단체, 5·18단체 등은 회화나무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후계수 식재, 방부처리 통한 현장 보존, 아시아문화전당 내부나 5·18 공원 이전 등을 검토해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의 건의안들을 취합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 ‘도청 앞 회화나무 문화제’ 현장에 회화나무와 선수영씨가 기증한 후계목이 나란히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부실 출자·출연기관 지자체장 해산 가능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수익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란 개별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으로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농림예산 감축은 농업 현실 외면한 것”

전남도, 정부 4년간 5조2000억원 감축 방침 반발

전남도가 앞으로 4년간 농림분야 예산 5조2000억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림예산 감축은 어려운 농업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6일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도 감축한다는 것은 생명산업이자 국민의 정주공간인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가 큰 농림축산분야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감축계획은 농업을 벼랑으로 몰고 농정 불신을 확산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식량 주권 확보와 최근 6년간 농림예산 증가율(3.1%), 박근혜 정부의 농정 목표를 감안하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 특화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보조금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도 건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현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생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인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3. 7. 1(월) ~ 7월 31일(수)
 - 최종선정 : 2013.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회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영광군향우회가족중 광주시민은 향우장학회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며입니다.

광주컨트리클럽 V-VIP회원모집

- 1. 코스규모** : 27홀, 108파(전장 9,446미터)
- 2. 모집인원** : V-VIP회원 100구좌 (개인 및 법인)
 -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 2,764명
 - 기 모집된 회원 : 2,664명
- 3. 모집기간** : 2013년 6월 17일 ~ 2013년 7월 30일
 - 모집인원 미달 시 총원 사까지 계속 모집
- 4. 입 회 금** : 1구좌 1억원(개인/법인 1구좌 2억 가능)
- 5. 구비서류**
 - 입회신청서 및 입회계약서 1부(당사 소정양식), 정회원, 지정인, 가족회원 사인1매, 신분증사본 각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직증명서
- 6. 수납은행**
 - 광주은행 001-127-011909
 - 예 금 주 : 광주관광개발주식회사
 - ※입회금수납은 지정계좌 입금액만 인정하며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7. 입회권 분할납부안내** : 계약금20%, 잔금80%(계약후 1개월내)
- 8. 기 타** : 희망자에 한하여 광주은행에 대출 안내하여 드립니다.
- 9. 회원 특전 및 자세한 사항은 061-339-7114 또는 061-339-71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컨트리클럽

장흥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568生生 바이오식품 일자리창출 사업

가금식품가공 및 바이오식품유통 서비스 전문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비 전액 무료

- 모집기간 : 2013년 5월 31일(금) ~ 6월 21일(금)
- 추가모집 : 2013년 6월 27일(목)
- 모집대상 : 식품가공 또는 유통서비스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전남도민 (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 단, 연 매출 1.5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참여가능
- 신청서류 : 훈련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1통
- 모집인원 : 40명
- 교육기관 : 2013년 7월 초 ~ 10월 말
- 교육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한방산업진흥원 등)
 - 매주 화, 목요일 09:30~13:00, 17:30 /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교육 과정

- 식품위생 / 식품가공기술 / 바이오 식품 조리실습
 -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알고 식품을 조리, 가공하는 교육
- 현장 실습 및 견학
 - 가공현장에서 직접 실습하고 현장을 견학함
- 유통상식
 - 유통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준비를 위한 교육
- 유통 및 마케팅
 - 식품의 유통 및 포장, 판매기술과 고객응대에 대해 교육
- 직업교양
 - 건강관리, 조직적응력 및 성격유형검사, 취업대비교육, 창업컨설팅

문의 및 접수처

장흥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 061-860-0339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062-958-7882